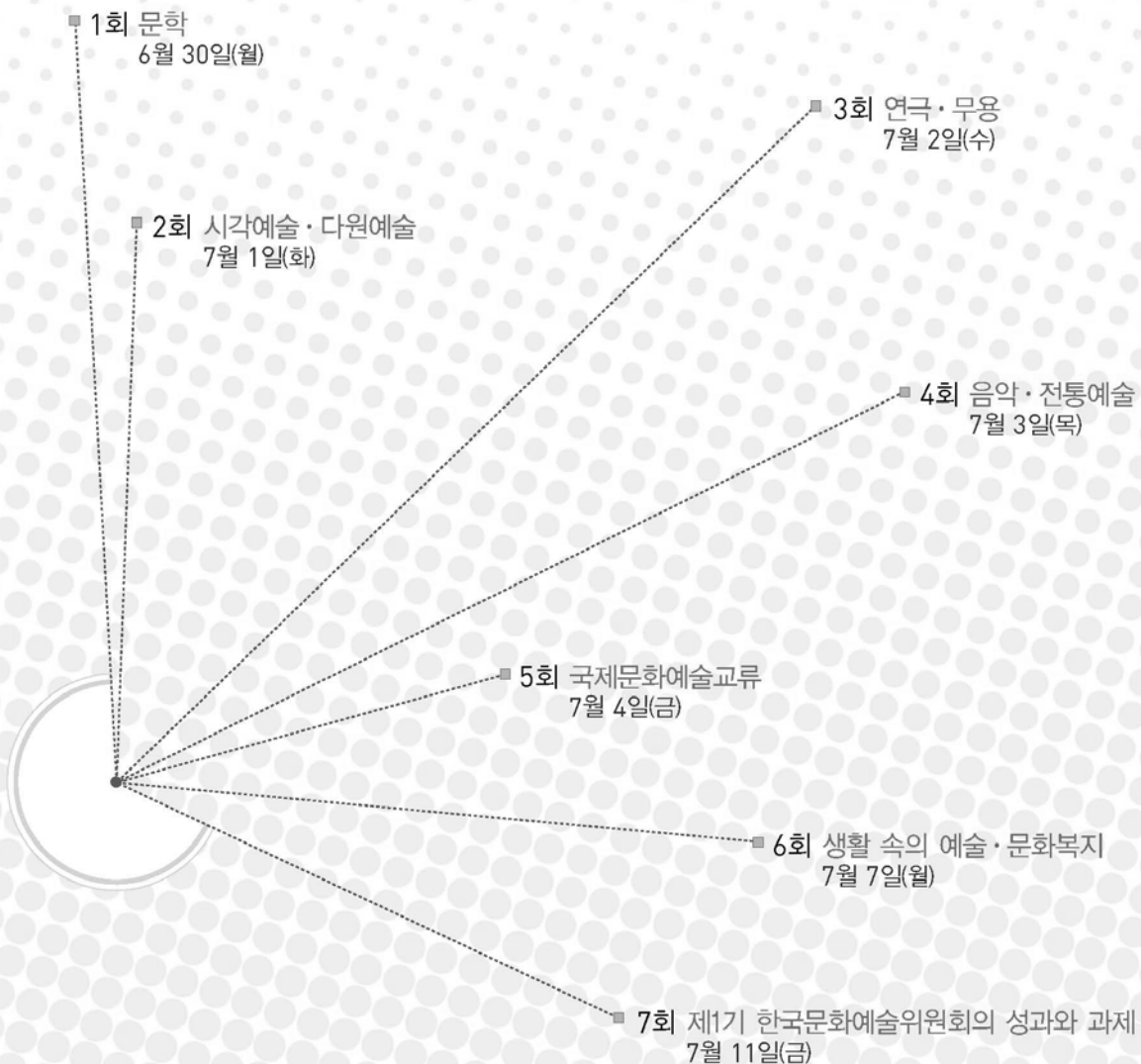


예술지원정책 릴레이토론회

일 시: 2008년 6월 30일(월) ~ 7월 11일(금)
장 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3층 강당

생활 속의 예술 · 문화복지

7월 7일(월) 오후 2시



차 례

생활 속의 예술·문화복지	
• 발제	
- 일상에서의 예술 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1
정갑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 일상적 삶이 예술의 소통으로 피어나기	10
정지은((사)연극놀이터 해마루 이사, 세월마을학교축제 ‘달님과 손뼉치기’ 예술감독)	
-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의 즐거움	15
전민규(큰들문화예술센터대표)	
- 일상에서의 예술과 문화복지 - 경기지역의 문화복지 사업	18
양원모(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교육팀장)	
- 일상에서의 예술과 문화복지 - 성남의 사랑방 문화클럽을 중심으로	26
박승현(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	
- 성남문화클럽 사례 영상	

프로그램

시간	진행내용
생활 속의 예술 · 문화복지	
* 사회: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팀장)	
발제(각 20분)	
14:00~14:20	발제 : 정갑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각 10분씩)	
14:20~1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지은((사)연극놀이터 해마루 이사, 세월마을학교축제 ‘달님과 손뼉치기’ 예술감독) - 전민규(큰들문화예술센터대표) - 양원모(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교육팀장) - 박승현(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 - 성남문화클럽사례영상
15:10~16:10	지정 및 자유토론

발제

일상에서의 예술 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정 갑 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며

일상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의 중요성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영역 구분이 희미해지고 국민 전반의 삶의 질 향상과 창의력 증진을 위해 문화예술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 강조되면서 그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일상에서의 예술활동은 일상에서의 예술활동 혹은 일상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일상에서의 예술활동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예술적인 활동, 즉 무엇인가 창조적인 행위를 하거나 혹은 향유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상에서의 예술활동은 직접 창조적인 활동으로 연결될 경우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인으로서 예술 창작에 참여하는 방식의 활동이 될 것이며, 일상에서의 향수 행위일 때는 전문적인 예술작품을 즐기는 것과 비전문인의 예술활동을 즐기는 것 모두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상에서의 예술은 주체가 비전문예술인, 즉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전문적인 그리고 비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미래의 관객을 위한 준비일 수 있으며, 이러한 기반구축위에 뛰어난 예술가들이 출현할 수 있고, 나아가 문화예술의 긍정적인 효과로서 문화예술을 접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창의성을 체득화시킨다는 일반적인 주장에 비추어 사회전반에 걸쳐 창의력이 증진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흔히 지식기반사회에 왜 예술활동이 중요시 되는가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여기서 일상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의 범위와 내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단지 좁은 의미의 예술을 넘어 문화전반에 걸친 활동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일상에서의 예술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다. 다만 여기서는 정책과 관련하여 좁은 의미의 예술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의 범주는 예술의 고유영역은 물론 박물관과 미술관의 방문 및 감상, 지역의 문화센터를 비롯한 문화시설 방문 및 그곳에서의 활동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음. 이에 관해서는 국민문화향수 실태조사가 그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음. 1997년 이래 국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은 하강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가 하고 의심할 정도이다.

그런 결과에 비하여 로토복권기금의 투입 등을 비롯하여 국민문화향수 및 활동 증진을 위해 지원된 금액은 크게 늘어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원액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수 및 활동은 위축되고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즉 매체를 통한 간접 향수와 창조 활동이 밝혀지거나 조사되고 있지 않아 일정한 한계는 있다. 즉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어떻게 문화향수와 창조를 위한 활동을 위해 신매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추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이 전에 볼 수 없었던 문화예술 향수와 창작을 이 공간을 통해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상공간에서 가상의 경험을 통해 문화예술 창조와 향수의 상당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공간에서의 경험은 일정한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인 만큼 오프라인 상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면 이것은 나름대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현실의 이해위에서 어떻게 문화예술 향수와 창작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일상에서의 예술 활동 증진 관련 정책의 흐름

일상에서의 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의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았다. 향수증진 측면의 정책은 문화발전 10개년계획, 즉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고 보면 될 것임. 물론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역(방)문화의 강조와 더불어 향수 측면의 정책이 시행되기는 했으나 본격적인 정책은 1990년대 그것도 중반 이후이다. 만약 일상에서의 예술활동을 예술향수로 - 즉 고급문화예술의 향수 - 국한한다면 예술에 대한 접근권 강화로 표현될 것이며 따라서 찾아가는 예술활동, 사랑티켓과 같은 제도의 도입, 학교안팎의 문화예술 활동 및 교육 강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문화학교 활동을 1990년대 초부터 실시하고 문화원의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일상에서의 문화예술 접근권 강화를 모색하였으며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는 1990년대 중반이후 - 정확히 말해 1996년 이후 - 문화복지 개념을 본격화 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문화복지는 국민 문화예술 활동을 일상 속에서 구현하려는 전형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의집 개념을 도입하여 전국에 생활문화를 위한 공간으로 문화의 집을 조성하고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전국에 150여개의 문화의 집이 남아있는 것은 그러한 정책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문화의 집 조성은 바뀌었으며,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가 전국적으로 조성된 바 이는 문화의 집의 변형된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정책은 성공적이었는가 아니면 성공적이 아니었는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간단하지 않으며, 다만 무엇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을 뿐이다. 문화의 집과 같은 지역의 생활문화시설의 경우 잘 알려진 것처럼 자치단체에서 이곳에 적극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여할 의지가 부족하며 일상생활 속의 문화활동 증진에 관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자치단체 역시 관심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현실이 생활 속의 문화활동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커다란 이유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사실 일상생활 속의 문화예술 활동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를 강조하던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수요자 창의성 증진을 위해 문화감수성증진을 통한 문화감수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은 있었으나 이 부분에 특별히 정책적 집중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공공도서관, 박물관, 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 및 기관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노력은 있었으며 이는 다음 정부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강조하는 밑거름이 되었음. 이러한 문화기반시설에서의 교육프로그램 확대 이외에도 2000년부터 시행된 7차 교육과정 개편과 더불어 문화예술 생활화를 위한 학교예능교육확대 정책이 일정부분 고려되었음. 이러한 노력은 전반적으로 문화복지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거나 이해된 바 있으며 그 커다란 지향점은 문화감수성 함양을 통한 창의력 증진이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바탕위에 생활 속의 문화활동 증진을 모색하였겠지만 문화복지 개념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적 지원 개념으로 인식하여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정 시켰음. 특히 로토복권기금 사업으로 인한 기금지원이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나눔사업으로 되어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음. 다만 이러한 지원이 정말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은 해보아야할 여지가 있다. 물론 참여정부는 이전과 다르게 예술정책에 있어서도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여 일반국민의 향수 차원의 정책을 강조하여 전문예술인들로 부터는 비판을 받은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동시에 기초예술의 진흥을 위한 각종 방안 및 진흥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는데 기대만큼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학적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할 수는 없지만 수요자 중심의 예술지원 정책을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한 결과 접근기회는 크게 제공하였으나 이것이 예술진흥으로 그리고 국민 전반의 일상속의 예술활동 증진을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국민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정책이 없던 것은 아니다. 특별히 참여정부가 지향한 국민전반의 예술정책은 예술교육정책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생활 속의 예술 활동 증진은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하여 시행되었으며 그것은 입법이나 예산의 규모에서 증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 시행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는 이외에도 중반기 이후부터 작은도서관 조성 사

업을 꾸준히 계속하여 시행하여 지역문화 증진과 국민문화권 신장에 기여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이 국민들의 문화예술 감수성 향상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알 수 없는 만큼 이러한 사업이 생활 속의 예술 활동 증진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 가운데 일상생활의 예술 관련 항목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을 언급한 것을 보면 이러한 사업시행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지나 간 문화예술 정책에 나타난 일상에서의 예술활동 증진 관련 정책은 분명히 일정 부분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예술의 창작과 소비를 생활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것은 그 동안 문화향수 실태조사를 통해 전반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더욱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한 것을 고려한다면 효율성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도 있다. 문제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여기서 단적으로 지적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다만 국민의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내용이 뒷받침되어 정책이 전개되었다기 보다는 일단 공급을 통해 일정한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전제하에 정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정확한 효과측정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아이템의 도입에 따라 강조하는 바가 달리 나타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과학적 평가에 근거한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도 적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국민 전반의 문화감수성 함양이라는 대전제로 돌아가 각 시설, 자원, 인력과 프로그램, 나아가 홍보전략 및 평가체계를 모두 고려하는 총체적인 접근으로 일상속의 예술활동 증진 정책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일상속의 예술 활동 증진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과 과제

3.1. 일상속의 예술 관련 정책의 분명한 정책목표 설정

일상속의 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이 무엇을 지향할 것인지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민전반의 문화예술 감성 증진을 통한 창의력 향상과 삶의 질 증진인지, 혹은 예술발전을 위해 국민의 일상을 활용하려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정책목표에 다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 문화예술

현황으로 보아 일상속의 예술 활동 증진을 통해 국민 전반의 (문화)예술 감수성 향상을 지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보여 지는 바 국민문화감수성 증진을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2. 일상에서 예술에의 접근강화를 위한 자원동원

이를 위하여 우선 국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장소(시설 및 기관)와 기회를 면밀히 조사하고 활용하여 그곳에 투입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가능하면 많은 접근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접근의 강화를 위한 시설은 우선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 도서관, 문화원, 청소년센터, 복지회관, 그리고 박물관과 미술관 같은 시설이나 기관이 될 것임. 그리고 기존에 이러한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과 시설이 충분히 만족할만한 것이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이다. 항상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여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문화예술을 자주 접해 생활화 하여야 하며, 문화예술에 익숙하지 않은 성인의 경우 역시 유사하겠지만 여건이 다른 만큼 보다 다른 방식의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거에 언급되었던 문화예술축매요원도 오늘날 형식을 달리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결국 시설이나 기관에 이러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 한다. 그렇다면 항상 우려되는 합당한 프로그램 부족 혹은 이러한 프로그램 기획능력 부족이라는 현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인 방안 몇 가지를 모색해 보자.

3.3. 지역 적용 다양한 모델 찾기

일상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한 문화예술의 발전 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모범적인 정책을 찾기 위하여 우선 일정 지역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정 지역단위에서 그 지역에 위치한 생활권 문화기반시설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실상 속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모델을 찾기 위하여 시범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하면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모든 지역에 동등한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아

나라 여건에 따라 어느 지역은 도서관 중심으로 어느 지역은 문화원 중심으로 또 어느 지역은 문화의 집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

3.4. 문화예술로 행복한 국민 운동 전개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만큼 각 종 매체 등의 협조를 받아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접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기쁨을 갖다 주는지 가족을 위해 얼마나 커다란 행복을 느끼도록 하는지를 공감할 수 있도록 전 국민적인 캠페인과 운동차원의 활동을 벌릴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민간단체가 운동주체가 되고 문화부와 언론 등이 협조하여 장기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문화부와 지역자치단체에서는 문화예술로 행복한 가정을 매달 선정하여 시상하고 소개하여 그들의 삶의 모습을 국민에게 소개하여 모범이 되도록 하고, 문화원이나 문화의 집, 그리고 복지기관과 같은 각 지역 단위의 시설과 기관에서 이를 소개하고 공감대를 확산한다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문화예술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는 가정과 국민들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3.5. 동아리 단위, 가족단위 문화활동 지원

오늘날 일상생활 속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을 위한 전략적 접근에서 동아리활동의 활성화는 빼놓을 수 없는 접근방안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활동에서 동호인들의 활동이 갖는 영향력은 각 분야 익히 알려져 있으며 문화예술 활동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영역이 희미해질 정도로 소위 아마추어의 전문성이 인정받는 것이 오늘날의 흐름이고 보면 이들이 모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문화예술정책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동아리 활동을 가족단위로 연결하여 전개하면 보다 커다란 효과를 가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시 자원봉사체제와 연결한다면 보다 효과를 가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금까지 눈길을 돌리지 않았던 영역을 고려하여 문화정책에서 도입해 보는 것도 일상에서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6. 사회적 취약 지역 및 계층 어린이 악기활동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전통적인 문화예술 정책에서 항상 지적되었던 문제가 문화격차 해소였음은 잘 알려져 있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문화격차 해소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대부분 시설이나 예산 혹은 프로그램 제공 등에서의 차이로 간주했으며 따라서 어디까지 진행되어야 격차가 해소된 것인지 혹은 그 기준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건이 미흡한 곳의 여건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예술 낙후지역의 주민들,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각종 악기의 연주를 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예산이 다소 수반되더라도 가능한 한 우수한 예술실기교사로 부터 정기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추후에 풍요롭게 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화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다. 격오지에 있다면 정기적으로 교통편을 제공해서 도시로 나오도록 해본다는 등의 여러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도시의 불우 청소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난무하는 국가라 적용하기에는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 불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악기를 가르치고 또 이들을 대상으로 수 많은 오케스트라를 조직하여 우수한 예술가들을 배출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3.7. 문화예술 낙후지역 주민 효과적인 예술 접근 강화 사업시행

문화예술 낙후지역 주민들을 근처의 가장 가까운 도시에서의 수준 높은 공연 및 전시에 교통수단 제공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권 강화를 시도할 필요 있으며, 이를 위한 대행사업을 지역 문화원 등이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성한다. 물론 이것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사회취약계층들에 대한 접근권 강화사업에도 해당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업은 문화나무 사업으로 접근해야하는 만큼 이러한 사업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8. 국민 문화감수성 측정 지표개발 및 지수 측정

국민문화향수실태 조사 사업과 더불어 국민문화감수성 측정 사업을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현재의 지원사업이 국민 문화감수성 증진에 효과적인지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방법의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접근권 강화 사업을 위해 지원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감수성 증진여부를 알아보는 측정조사가 병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와 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정책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제

일상적 삶이 예술의 소통으로 피어나기

정 지 은 ((사)연극놀이터 해마루 이사,
세월마을학교축제 ‘달님과 손백치기’ 예술감독)

1. 일상생활의 연극과 해마루의 인연

민중과 함께 이루어진 우리 전통문화예술 현장들 중 두레곳은 지역과 주민공동체문화의 꽃이었다. 그러나 이 두레공동체는 산업화 이후 노동의 형태가 바뀌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으나 두레공동체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70-80년대 문예운동을 통해 ‘일상생활의 예술성’을 다시 구현하게 된다. 농민, 노동자중심의 생활예술집단은 문화패, 풍물패로 불리면서 80년대 이후 다양한 현장 문화운동의 경험을 축적하며 새롭게 발전하게 된다.

이 시기 연극놀이터 해마루의 창립 구성원들은 극단에 소속되어 현장 공연활동과 함께 문화 활동가로서 교육을 통한 생활연극을 시도하게 된다. 삶과 생산의 터전에서 현장의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표현하면서 사회와 나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동료들과 소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다시 삶과 생산터전의 발전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후 해마루 구성원들은 전문화의 필요성을 느껴 극단에서 분리하고 교육과 일상의 예술 활동이라는 두 축을 결합해 가면서 도시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방향을 잡아나간다.

누구나 연극을 통해 삶을 성찰하고, 창조적 소통의 기쁨을 누리며,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연극놀이터 해마루는 다양한 연극놀이 강좌를 펼치고 있는 전문 교육연극단체이다. 전통 연희를 새로이 우리의 놀이로 개발하여 우리민족 고유의 신명과 정서를 함께 나누고자 전래노래, 놀이, 장단, 춤 등을 중심으로 공동체적인 교육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사)연극놀이터 해마루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대상 연극놀이 및 공연	연극의 통한 자기표현과 창의적인 상상력, 공동체적 문화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 및 공연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초중등 교사 직무 연수	교육 현장의 다양한 교과목 교육과 통합교육, 재량활동 및 학생자치활동의 수단으로 연극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교육
노인문화예술교육	노인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래, 놀이, 춤과 연극을 통해, 노인의 자기성찰과 발견, 행복한 노년의 삶을 꿈꾸어 보는 예술교육프로그램
가족문화 프로그램	가족단위로 연극놀이에 참여해서, 세대간 만남과 소통을 통해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전통연희를 활용한 연극놀이 매개자교육	전래놀이, 민요, 풍물, 탈춤, 옛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연극놀이 매개자 양성 교육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역의 문화유산, 인물, 역사적 사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조사와 탐구를 바탕으로 연극놀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 참여형 지역 문화 활성화 및 문화 콘텐츠 발굴

2.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세월공동체연극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양평 세월마을학교 축제로 세월을 담다 ‘달님과 손뼉치기’)

그간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역적/문화적 정체성들이 흔들리고 공동체 의식이 사라질 위기가 보이며, 공동체의 기반을 이루는 기초문화들조차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했다.

다음의 사례는 이런 위기의 현장들 속에서 지역 공동체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의 소통으로 건강한 공동체성을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소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한편으로 아직 도시에서 자리 잡고 있는 해마루에게는 조심스럽고 실험적인 시도이기도 하다.

(1) 지역적 특성 및 추진 배경

-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세월초등학교는 60년의 전통을 가진 재학생 50명의 작은 학교이다. 학군은 양평 세월리. 대석1.2리와 여주 전북리로 되어 있다.
- 07년 경기문화재단의 ‘교사-전문가 협력모델- 교육연극을 활용한 창의적인 학교수업 디자인하기’로 1년 동안 교사와 학생들을 만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전체의 문화예술교육축제를 구상하게 된다.

- 세월초등학교 교사와 학교 그리고, 기획자와 예술교육자는 농촌지역에서 지역공동체문화의 거점으로 학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이 축제의 목적을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전체 마을의 소통을 일구어내는 것’으로 합의하여 준비를 한다.

(2) 주제설정과 의미

- 주제를 ‘마을’로 하고 그동안 흐려졌던 마을공동체의 역사와 인물, 마을이야기, 지형지물들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교육의 중심적 테마로 결정.
- 주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학교 내에서 마을로 확대. 학생들의 마을주민 인터뷰하기, 마을탐사하기, 동문들을 통한 옛 학교 이야기 전해 듣기, 옛 사진 모으기, 오래된 지형지물, 물건들 찾아내기 등 다양한 주민 직접접촉을 통해 학교의 교육과정이 주민과의 밀접한 소통을 기반으로 완성되고 주민과 학교교사가 아이들 교육의 이끔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쌍방향 소통은 곧 마을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복원에 기여하여 지역에 살고 있는 현재라는 시간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 사이의 연결선상에 있다는 의미를 학생들과 주민 공동체가 인식하게 한다.

(3) 교육설계와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의 쌍방향 소통

• 학교 교육설계 (선도학교지정)

1학년	그림책 속에서 마을 만나기	4학년	마을 지도 그리기
2학년	마을 속 자연 탐사	5학년	마을 길 문패 만들기 마을 영화만들기
3학년	살아있는 그림 마을풍경그리기	6학년	마을 휴먼다큐 만들기

• 주민과의 소통문화예술교육

- 마을 영화 만들기
6월 17일~7월 3일(화.수.목) / 마을 노인들과 세월초 5학년참여
- 마을지역 공동체 연극 만들기
6월 13일~7월 11일(매주 금요일) 3~6학년 연극 만들기
6월~8월 매주 화요일 마을 주민. 학부모 연극 만들기

8월 18일~20일 연극 캠프

9월 연극 리허설, 10월 11일 지역공동체연극

• 주민과 동문 그리고 어린이들의 공동작업

- 옛 추억 사진전(동문들과 마을 주민들을 통해 옛 마을의 모습, 학교를 담은 사진들을 모아 축제기간 옛 추억을 떠 올릴 수 있는 마을길 사진전 예정)

- 타일벽화, 걸개그림, 깃발 만들기

(4) 축제 전반에 걸친 주민참여

- ‘마을’이라는 주제에 대한 인터뷰를 시작으로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적 동기 부여를 위한 활동의 전개

- 학교교사와 기획자, 예술가, 주민자문위원의 정기회의를 통한 교육설계 디자인과 이장 이하 지역 주체역량들의 홍보와 자발적 모임 추진을 위한 활동

- 동문의 적극적인 홍보와 축제 기여 유도

- 축제의 상을 만드는데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2월 축제 준비 위원회에서 5월 축제 운영위원회 발족과 더불어 축제의 역량들을 모아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운위(4개 마을운영위, 세월초 운위, 세월초동문회)와 축제 기획단, 교사연구회를 구성

(5) 축제에서 기대되는 효과

• 작은 농촌마을과 학교가 축제를 통해 마을의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학교를 살려나가는 삶의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의 이야기를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찾아 나가고, 놀이를 통해 그들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모습들, 그리고 결과물을 통해 문화예술이 삶과 마을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지역공동체연극이라는 대안연극의 새로운 모색에 대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예술의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제시해 줄 것이다.

• 지역/학교, 돌봄의 사회를 통해 건강하고 작은 지역공동체들이 많아져야 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몇몇의 인력이 주축이 되어 새로운 구성체를 만들어 가야하

는 도시형 공동체가 아닌 농촌이라는 지역의 특성에서 모든 주민들이 마을축제를 통해 모아지면서 일상의 삶이 확대되고 풍요로워지는 마을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것이다.

3. 일상적 삶이 예술의 소통으로 피어나는 일

현재 진행 중인 축제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러한 일련의 준비활동들이 학교교사와 어린이, 주민, 그리고 동문들까지 행복바이러스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질문 속에 옛 기억을 더듬으며 현재의 생활이 가치 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물어오는 아이들이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은 돌봄이라는 가치아래 할 아버님의 흐뭇한 웃음으로 피진다. 축제에 참여하는 우리 각자는 공동체 복원의 길로 조금씩 다가가면서 희망이라는 행복의 바이러스를 확인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마을 주민이 참여하고 운영하고 기획하고 표현해 가는 축제 속에서 통합 위기에 몰린 작은 학교의 소망은 70세가 넘은 동문들을 학교로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벽찬 감동이며, 마을의 공동체성이 문화예술의 전문가와 어떻게 소통하여 지속적으로 관계 맺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현재 진행형이다.

참여예술이 사회적 상호의사소통의 관계, 다양한 가치와 삶의 태도와 사고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긍정적 자기정체성을 형성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에 기여함으로써 공동체의 자발적, 자생적 문화예술로 발전하리라 믿는다.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예술의 대중접근법은 단기간의 교육과 체험만으로는 부족하며, 교육과 체험을 뛰어넘어 지역의 특성을 담은 자생적 예술 활동의 영역까지 긴 호흡을 갖고 가야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의 예술성은 결과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고스란히 공동체가 담아가는 형식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것은 예술전문가와 현장주민들과의 깊이 있는 소통을 전제로 한다.

문화예술정책이 고급예술의 보급을 넘어서 공동체의 예술로 확장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예술 전문가와 지역에 대해서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는 공동체성의 복원과 사회통합, 그리고 문화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 될 것이고 그런 일이 앞으로 펼쳐지길 예술교육전문가로서 바란다.

토론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의 즐거움

- 큰들문화예술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전 민 규 (큰들문화예술센터대표)

큰들문화예술센터(이하‘큰들’)는 올해로 창립한지 24년이 되었습니다. 큰들은 그동안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경남 지역에서 풍물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해 왔으며 동시에 마당극을 창작하여 전국적으로 공연해 왔습니다. 문화패에 바라는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려 보면, 첫째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수준 높은 공연을 보고 싶다’는 것이고 둘째는 너희들만 하지 말고 ‘나도 한번 같이 놀아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큰들은 나름대로 이 두 가지를 방향으로 삼고 활동해 왔습니다. 풍물 강습을 통해 진주시 37개 읍면동 풍물패와 서부경남 지역 마을 풍물패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였으며 그 외에도 직장풍물패, 단체풍물패, 서부경남 초.중.고등학교 풍물패를 만드는데 주력 해 왔습니다. 요즘은 진주 창원을 비롯해 10명의 큰들 강사가 월 평균 250여명~550여명까지 풍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5명의 극단 배우들은 8개정도의 창작 마당극 레퍼토리를 가지고 연평균 100회 정도의 초청 공연을 전국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큰들에서 풍물을 배운 사람들(아마추어)들을 단지 교육에만 한정 지우지 않고 해마다 대규모로 큰무대에 올려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연을 진행해 왔습니다. 공연장 무대 크기에 따라 ‘150명 사물놀이 공연’, ‘130명 사물놀이 공연’ 이라는 이름으로 올려진 주민 참여형 공연은 올해로 14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큰들에서 1년 동안 풍물강습을 받은 시민들을 3개월동안 집중교육(1주일에 2회)을 한 후 큰들의 전문풍물패와 함께 대형 무대에 세웁니다. 조명과 음향, 무대미술을 전문공연과 같은 수준으로 공연장무대에 배치하여 관객들이 보기에 아마추어들의 발표회장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으며, 오히려 전체공연의 대단원인 마지막무대를 장식하는 것이라던지 압도적인 인원수와 심장을 울리는 연

주 소리에 완전(?)감동 됩니다. 6살 아이부터 70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도시사람과 농촌사람들, 의사선생님과 학교 선생님, 시장 좌판 아줌마 등 각종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이 공연은 여타의 전문가 그룹이 보여 주는 공연과는 그 느낌과 감동이 색다릅니다. 공연하는 사람이나 구경하는 관객이나 같은 일반 시민입니다. 한두 사람이 좀 틀리게 장단을 친다거나 하는 실수는 귀에 들어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모여 내는 울림에 공연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서로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큰들은 좌석 수보다 관객이 많이 모일까봐 걱정하지 관객이 적게 올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연자가 전부 입장표를 스스로 판매하고 관객을 모아 오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진주 큰들 공연에 2회공연 3000여명. 창립한지 2년된 창원큰들 공연에도 2회공연 2500여명의 관객이 모였습니다. 행사 기본 재정도 큰 걱정 없습니다. 출연자들이 참가비를 내고, 표를 판매하고, 소액 후원금을 만들어 옵니다. 팜플렛에는 130명 출연자 한사람 한사람의 사진을 모두 인쇄합니다.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출연자들 사진은 더 크게 신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공연내용과 연습과정, 출연자 한사람 한사람 얼굴이 들어있는 영상을 만들어 선물로 드립니다. 명절같이 가족이나 친척이 모이는 날이면 영상을 틀어 같이 보는 즐거움까지 있습니다. 출연자들은 농담삼아 그 비디오 테잎이 집안의 가보라고 이야기 합니다. 출연자들은 그 이후 큰들의 정기적인 후원자가 되시기도 하고 적극적인 홍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과일도 가져오시고 아프면 약도 보내 주십니다. 큰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그나마 재미있게 활동할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분들 때문입니다.

4년전에 배우들의 창작 작업실이면서 소품의상제작, 숙식공간으로 사천곤명면에 큰들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이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생활친화적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역민과 함께 할수 있는 음향기자재 구입을 비롯한 외부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으며 곧이어 곤명면 지역 풍물패를 만들었습니다.

전문단체인 큰들과 이제 막 시작한 아마츄어 단체인 곤명풍물패가 서로 힘을 모아 ‘곤명면 밝은땅 다솔 축제’를 기획하고 이장단을 중심으로 한 ‘준비위원회’, 곤명면 주민 130여명으로 만든 ‘추진위원회’을 만들어 행사를 하였습니다. 큰들의 마당극 공연, 곤명풍물패의 풍물공연, 바이얼린과 트럼펫으로 연주되는 가요와 트롯트, 마지막으로 12개 마을 이름이 인쇄된 오색천을 잡고 함께 어울리는 대동놀이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조기축구회는 행사장 안내와 자동차 주차안내

를 맡고 청년회는 마을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자기 자동차로 모셔오고, 또 어느 팀은 국밥을 준비하고, 돼지두마리 내신 모임도 있고, 사회는 입담 좋은 동네 아저씨가 보고.

큰들은 전문가 단체답게 모든 행사의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보조하고 도움말 드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면지역 분들이 하기 힘든 일들, 이를테면 조직구성, 언론보도의뢰, 사회자멘트, 공연배치 및 공연장구성, 대동놀이 진행 등은 큰들에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곤명면 작은 운동장에 불 밝혀 놓고 800여명의 주민이 모여 밤늦게까지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전체 재정은 350여만원 들어갔습니다. 비록 큰들은 무료로 공연을 진행하였지만 참으로 마음 푸근한 행사였습니다. 동네 분들도 몇십억이 들어간 큰 도시의 축제 행사에 구경가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해마다 이 행사를 이어 가고 싶다는 바람의 말도 들었습니다.

지역으로 들어간 하나의 전문예술단체와 그 지역 면민들의 만남은 지역문화예술의 내실 있는 발전에 큰 의미를 준다는 확신을 가진 행사였습니다. 이런 형태의 축제, 지역주민이 스스로 자랑스러울 수 있는 행사를 여기 한군데만이 아니라 여기 저기 다른 곳에서도 진행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았습니다.

큰들은 35명의 상근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물강사들과 배우들, 사무국, 기획실, 공간관리, 각 지역 큰들 담당(진주큰들, 창원큰들)으로 역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강습을 많이 하고 공연을 많이 다녀도 재정자립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희 큰들은 나름대로 ‘예술가공동체’를 만들어 부족한 재정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구성원들끼리 인정과 배려를 통해 서로를 다독거리며 예술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 나가기는 하고 있지만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술, 커뮤니티 아트의 출발은 그 일을 기획하고 진행시켜 나가는 야심찬 활동가(예술가, 기획자)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런 활동가들이 지역주민과 생활적으로 문화적으로 깊이 교감하고 더불어 함께 문화 예술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과 정책제도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30명 사물놀이공연’ 이나 곤명면 ‘밝은땅다솔 축제’를 해마다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도 전파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 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토론

일상에서의 예술과 문화복지

- 경기지역의 문화복지 사업 -

양 원 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교육팀장)

경기문화재단은 문화복지 (문화나눔) 관련 사업을 하면서 저소득층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였으며 차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과 문화소외지역의 잠재적 예술애호인들의 문예활동을 촉진하는데 힘썼다. 이같은 사업이 예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전 사업과 변별되는 것은 지원 사업의 태도, 자세, 지향 그리고 접근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일예를 들면 저소득층을 위한 문예지원 사업을 함에 앞서 저소득층 밀집지를 조사하였다. 우선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에 소재한 12평 이하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12곳을 꼽았으며, 사업 파트너로 그 지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와의 연계 활동을 꾀하였다. 그들과 간담회, 사업 설명회, 공동연수를 하며 그 지역에 잠재된 문화욕구를 청취하였으며 경험있는 문화예술인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복지사들이 지역민의 문화욕구를 수렴하여 사업에 녹여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다. 그 결과 연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어린이들에게는 악기교습활동이,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에게는 가가호호 방문 문화예술 지원활동과 문화예술 나들이가 실행되었으며, 복지관이 주관한 마을잔치에 전문극단이 투입되어 맞춤형 공연을 펼쳤고 연말에는 어린이와 악기교습을 지도했던 음악인들이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가 있었다. 작은 음악회도 보여주기식 음악회가 아니라 어린이와 학부모, 마을주민과 음악교사들이 함께 즐기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음악회로 꾸러졌다. 올해에는 여기에 더하여 성인들을 위한 문예강좌와 인문학강좌가 열릴 예정이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꾸러지는 문예지원 사업의 주 컨셉은 지역구성원의 자존감 향상과 예술로 빚어진 충만한 하루 맛보기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시와 음악과 연극 그리고 춤과 미술이 어우러져 있는 인정받고 인심좋은 마을 만들기에 일조하는 것이었다.

또 하나의 예는 ‘도서관에서 만나는 예술’이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에 있어서 시군마다 편차가 크다. 경기도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다. 경기도에는 120여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이 가운데 11곳의 도서관을 파트너로 하여 시범사업을 하였다. 그동안 문화향수 기회 확대라는 목표 하에 찾아가는 예술무대 등 다양한 사업이 있었지만 현지 주민이 지역 실정과 문화욕구를 고려하여 공연단을 초청하기에는 여건이 숙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경기문화재단에서는 도서관이라는 특수시설에 알맞은 공연물을 선별하여 도서관에 추천하였으며 도서관에서는 작품기획자 또는 연출가로부터 작품 설명을 듣고 소속 도서관의 실정과 욕구에 부합되는 작품을 선택하였다. 일명 맞춤형 공연이 가능하도록 경기문화재단은 중개하고 선별된 작품의 공연비용을 지원하였다. 올해에는 50여곳의 도서관에서 이 사업이 펼쳐질 예정이다.

예를 하나 더 들면 장애인, 새터민,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가정 등등 사회소수자를 위한 문예지원활동은 사회소수자 관련 문화예술 소집단 또는 지원단체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다각도로 뒷받침하는데서 더 나아가, 사회소수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극화한 작품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사회소수자의 삶과 문화를 주제로 한 전문예술집단의 창작품을 별도로 공모하여 지원한 다음, 사회소수자 네트워크 축제 때 발표하여 다중과 향유할 수 있게 2년째 매개해 주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문예진흥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몫 또한 확장되며 보다 섬세하고 심도있는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이 기대에 부응하기위해 문예진흥기관은 문화예술기반시설 운영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문화예술교육 기획연구자들과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예술의 생성과 만개를 꿈꾸는 예술가들을 이어주며 지혜를 집적하고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2007 경기문화재단 문화나눔 주요사업 목표

○ 소외계층 문화복지 증진

- ▷ 사회취약계층 밀집지역 조사
- ▷ 사회복지관 연계 문화복지 프로그램 협동 개발
-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악기 교습 활동과 조손가정·장애인·독거노인 방문 맞춤형 문예활동 지원
- ▷ 사회취약계층 주거 단지 내 마을 잔치를 통해 공동체 문화 형성 매개

○ 사회소수자 문화창조 여건 조성

- ▷ 사회소수자의 삶을 주제로 한 예술작품 산출 유도
- ▷ 사회소수자 문예동아리 네트워크 형성 매개
- ▷ 경기 남·북부를 연계한 사회소수자 네트워크 문화제 개최

○ 다문화 커뮤니티 안팎 교류 및 소통 매개

- ▷ 아시아 네트워크 모임과 협력하여 이주민을 위한 생활정보 수집
- ▷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다문화 생활정보 가이드 북 기획 추진
- ▷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인큐베이팅과 기획 발굴 지원

- ▷ 학교안팎 청소년 문예동아리 육성 통합지원 및 청소년 문화기자단 육성 후원
- ▷ 지역사회 아마추어 문예동아리 작품 무대 발표 기회 제공
- ▷ 역사와 주체가 뚜렷한 소규모 지역 문화축제 지원 - '작은 축제' 후원
- ▷ 권역별 문화예술 특성화 사업 기획 발굴 지원
 - 문화기반시설 (문예회관, 문화의 집)을 활용한 특화된 아카데미 또는 시민예술학교 설치 후원

◎ 소외계층 문화예술 접촉기회 확대 지원

□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수와 참여기회 확대 ○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자존감 형성과 사회적 이해 제고 ○ 지역사회내 구성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생활문화 형성 유도		
사업내용	○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거리극·야외극 공연 및 뒤풀이 마을잔치 지원 ○ 문화소외지역내 복지관 연계 악기 교습 및 가정 방문 문예활동 지원		
사업기간	2007. 3~12	예산액	3 억원

□ 사업실적

- 문화소외지역 및 관할 사회복지관 조사
 - 18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주소 확보 및 관할 사회복지관 파악
- 사업 field(문화소외지역)선정 : 고양, 광명, 군포, 부천, 성남, 안산, 안양, 의정부, 평택 영구임대아파트 (12평형 이하) 단지
- 소외계층 관계자(단체) 간담회 및 방문 : 8회 (참석인원 - 25명)
- 사업설명회 개최(3. 20) : 13개 복지관 17명 참석
- 악기 교습활동 관련 강사 POOL 조직을 위한 강사추천 공고(3. 27 ~ 4. 30) : 24명 선정
- 소외계층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주관단체 공모(3.13~4.6)
 - 사업지원내역 : 11개 사회복지관 183,000천원 지원
- 사회복지관 앞마당 거리극·야외극 공연 단체 공모 (3.13~4.6)
- 사업지원내역 : 극단 예성 외 4건 100,000천원(각 팀별 4회 공연)
- 사업관련 추진단체 실무자 등 워크숍 (1박2일, 5월 17일~18일)
- 영구임대아파트단지 프로그램 추진 현황 보고 (6월말)
- 아동,청소년 악기교습활동 참관보고 (9.11)
- 사회복지관 등 20곳 극공연 및 마을잔치 참관 (7월~10월)
- 사회복지관 12곳 아동·청소년 악기교습 발표회 및 가정 방문문예활동 전시회 참관(11월~12월)
 - 강사 자평 취합 및 사업평가 간담회 (12월)

● 다문화 활동 지원

□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국제결혼, 이주노동으로 비롯된 다문화 가정과 사회의 문화 갈등 해소 ○ 문화의 차이와 특성을 인정함으로써 동반자적 관계의 문화 형성		
사업내용	○ 다문화 활동과 이주노동자 관련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행사 공모 지원		
사업기간	2007. 3 ~ 12	예산액	7천만원

□ 사업실적

- 다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조사 (2. 21 ~ 3. 14) : 부천아시아인권문화연대 등 4곳
- 다문화활동 지원 공모 : 3.13~4.6
 - 사업지원내역 : 아시아의 친구들 외 9개 단체 68,000천원 지원 결정
- 사업평가 간담회 : 2008년 1월

● 더불어 사는 사회문화제

□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장애인, 탈북자 등 소수자 문화주체들과의 공감을 통해 다양한 문화 속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의 가능성 탐색 ○ 사회 소수자들의 주체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성과 공유와 교류의 장으로 축제 개최 ○ 예술인들의 소수자 문화예술활동 촉진과 사회적 관심의 확산		
사업내용	○ 더불어 사는 사회문화제 개최 ○ 소수자 관련 주제 창작활동 공모 지원		
사업기간	2007. 3 ~ 9	예산액	1억 7천만원

□ 사업실적

- 소수자 관련 주제 창작활동 공모(3.13~4.6)
- 사업지원내역 : 극단 현장 ‘일곱 빛깔 무지개’외 6건 99,100천원 지원 결정
- 더불어 사는 사회문화제 개최 : 9.7(금)~9.9(일)
 - 의정부예술의전당(9.7~9.8)
 - 소수자 인권만화전

- 콜로키움 ‘다문화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양육과 교육, 문화복지 대안 제시’
- 기지촌출신 혼혈인 다큐멘터리 ‘There is’
- 다문화음식축제와 체험행사
- 소수자예술활동 발표회 ‘공감’
- 마당극 ‘일곱빛깔 무지개’
- 야외음악회 ‘상생’
- 안산문화예술의전당(9.8~9.9)
 - 이주여성과 아이들 ‘Drinky Girls Never Get Drunk’
 - 우리 內 우리 展
 - 다문화음식체험
 - 마당극 ‘둥글어진다는 것은 낮아짐입니다’
 - 연극 ‘꿈’
 - 소수자예술활동 발표회 ‘공감’
 - 야외음악회 ‘상생’

● 권역별 문화예술 지원

□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경기도 권역별 문화예술 특성화 방안 마련 및 특성화 지원		
사업내용	○ 지역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매개로 한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기간	2007. 6 ~ 12	예산액	2억원

□ 사업실적

- 소외지역 문화기반 시설 방문, 사업 대상 현장 조사 6.8~6.28
- 지역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매개로 한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공모 : 7.6~7.31
 - 사업지원내역 : 남양주 시민미술학교 운영위원회 등 8개 단체 160,000천원 지원 결정
 - 현장 참관 (12월)
 - 사업평가 간담회 : 2008년 1월

● 문화예술 기획발굴 지원

□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기존사업에 반영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을 기획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함.		
사업내용	○ 도서관에서 만나는 예술		
사업기간	2007. 3 ~ 2008. 1	예산액	5천만원

□ 사업실적

○ 경기도내 공공도서관 11곳에 우수공연 기획 지원

주관도서관	공연일시	지원단체명	공연명	지원액 (천원)
이천시립청미도서관	12.29(토) 2시	극단 즐거운사람들	그건 도깨비마음이야	8,000
양주시립꿈나무도서관	1.5(토) 3시/5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12.29(토) 1시/3시	창작공동체 얼굴과얼굴	넙떠구리 콩쥐의 노래	9,000
파주시중앙도서관법원분 관	1.5(토) 1시/3시			
광명시중앙도서관	1.12(토) 1시/3시			
광주시립도서관	12.30(일) 11시/2시	토틀방	시리동동 거미동동	10,000
안성시립도서관	1.12(토) 2시/4시			
남양주화도도서관	1.11(금) 7시	시노래모임 나팔꽃	나팔꽃 콘서트	11,000
평택시립도서관	1.19(토) 5시			
성남시정보문화센터 분당도서관	1.19(토) 3시	전통연희단 꼭두쇠	연희로 만나는 음악회	12,000
동두천꿈나무정보도서관	1.20(일) 1시/4시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 사업 개요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시위주 교육에서 침체된 청소년 문화활동의 활성화 도모 ○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주체적이고 자발적이며 열정을 겸비한 청소년 육성 ○ 학교 내 동아리와 학교 밖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 수립 ○ 청소년 문화 기자단 육성 및 활동 촉진 		
사업내용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공모 지원 ○ 청소년 문화기자단 육성과 탐방 기사 언론 연재 및 탐방보고서 제작 		
사업기간	2007. 3 ~ 12	예산액	1억 3천만원

□ 사업 실적

- 청소년 문화기자단 육성 지원(4.6) : 경인일보 30,000천원 지원
 - 청소년 문화기자단 : 고미나 외 37명
 - 상반기 청소년문화기자 교육 : 4.12~5.10 매주(목) 19~21시(5회실시)
 - 여름방학 중 MT시행 : 7.28~29 실시 - 화성 쟁이골
 - 하반기 청소년문화기자 교육 : 8.29~9.27 매주(목) 19~21시 (5회실시)
- 공모지원 공고(3.13~4.6) 결과 발표(4.27)
 - 사업지원내역 : 발곡놀이마당 외 50개 동아리 72,000천원 선정
- 문화기자단 탐방기사 언론 연재: 5월~12월
- 문화기자단 탐방보고서 “우물 밖 하늘 소통”제작 : 2008년 1월

토론

일상에서의 예술과 문화복지

-성남의 사랑방 문화클럽을 중심으로-

박 승 현(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

문화예술의 수레를 움직이는 두 개의 바퀴

예술은 고대부터 인류가 축적해왔던 가장 높은 정신적 창조물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근대 이전, 예술과 삶은 서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그리고, 만 들고, 춤추면서 생활하는 공동체 속에 창조적 예술행위가 생활과 함께 수평적으로 녹아있었지요.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부터 예술은 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은 ‘예술가’가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일반 사람들은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객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예술의 질은 높아졌으나 일반시민 들은 예술로부터 소외되는 과정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예술발전의 역사’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정책은 두 가지의 중요한 축을 중심으로 과제를 설정하게 됩니다. 한 축은 인류가 축적해 온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예술을 계승·발전시켜 그 질을 높여내는 것입니다. 예술가를 육성·지원하는 정책은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한 축은 모든 사람이 인류의 문화유산을 향유하며 자신에게 맞는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을 삶 속에서 발 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향수 기회확대’라고 표현되어 온 정책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개의 중요한 축을 달리 표현하 여, ‘수월성(秀越性 Excellence) 제고’와 ‘접근성(接近性 Accessibility) 확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축이 궁극적으로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인류가 축적해 온 예술의 성과를 누리며 문화예술의 창조자가 되 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문화예술정책은 두 축이 만날 때 온전히 그 궁극적인 목

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함께 움직일 때 문화예술이라는 정책수레는 그 내용물을 제대로 싣고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문화예술정책은 과도하게 수월성 바퀴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월성 바퀴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예술가가 창작할 수 있는 좋은 풍토가 되려면 그들에게 창작지원금 혜택을 주는 것 못지않게 예술을 소비할 관객층을 키우고, 예술이 공기와도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인간의 삶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요소라는 것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뛰어난 예술가들이 배출되고 인류의 유산으로 남을 걸출한 작품들이 탄생한 사례를 보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성원들이 예술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성남문화재단 5대 정책사업 :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

성남에는 어딜 가나
문화클럽의 모임이 있다네.
그 모임에는 누가 구경꾼이고 누가 주인공이 없다네.
모두가 주인공이고 모두가 구경꾼이 되어 준다네.
시민들은 100년 후를 노래한다네.
예술시민의 도시, 성남에서 수많은 예술가와
창조가들이 탄생하고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사랑방 문화클럽이 꽃피는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이라네.

이 시구는 성남의 문화클럽들이 처음 만나 ‘클럽파티’를 여는 개막시(開幕詩)로 낭송된 후 클럽들이 모임 때면 항상 함께하는 노랫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여기에 멋진 곡을 붙여 모두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또 그 아이의 아이들에게 전해져 갈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클럽파티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예술시민의 도시가 가능할까?”

서로가 서로에게 말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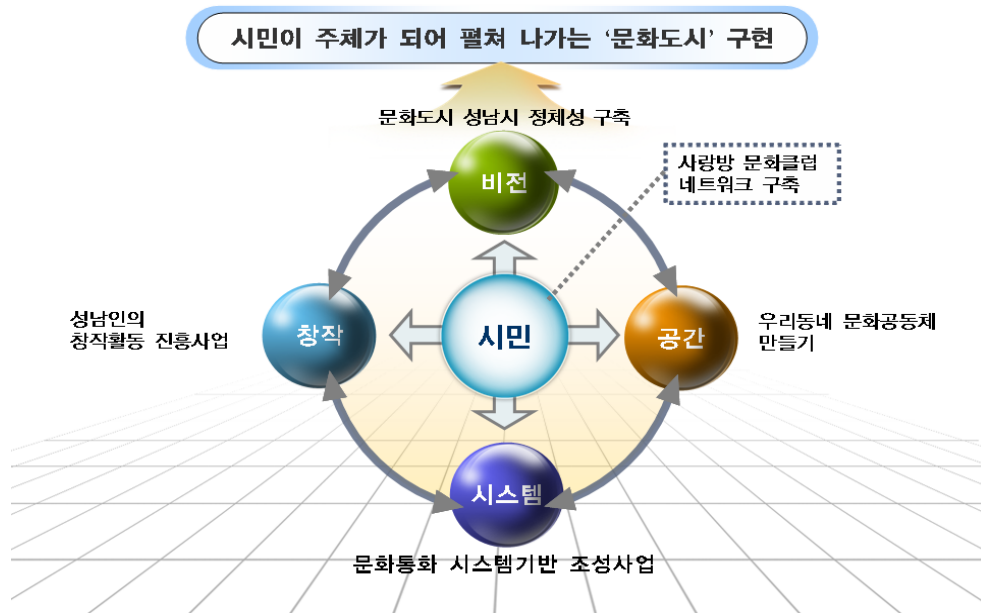
“그 지향의 알맹이에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류가 축적해온 예술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
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술은 모두의 것이 되고,
인간의 일상생활을 고양시켜 ‘인간다운 삶’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예술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할 때 예술가는 더욱 빛납니다.
예술가는 이제 시민 속에서 탄생하게 되고,
그 예술은 다시 시민의 창조적 역량을 고양시켜 내고 삶을 아름답게 끌어올려
줍니다.
이제 시민 모두가 예술가인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방 문화클럽 정책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5대 정책 사업이라는 한 묶음 속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방 문화클럽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5대 문화정책사업은 세로축과 가로축이 있습니다. 세로축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도시 전체를 바라보며 어떻게 구도를 짜들어 갈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면, 가로축은 구체적인 동네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펼쳐나가는 실천적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주요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축과 세로축은 어디까지나 좀 더 강조한 방점의 문제이지 핵심은 두 가지 축의 결합점입니다. 세로축과 가로축 어느 것이든 그것을 설명하려 할 때 제일 먼저 ‘시민’을 통해서부터 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핵심 골자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시민 누구나 스스로 끊임없이 창조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출발점은 어디일까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그 접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동호회라고 봅니다. 왜 문화예술동호회냐, 문화예술동호회는 일반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기량을 갈고 닦아 예술가로 가기 전의 다양한 모습을 펼치며 무수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기체입니다. 더불어 공동체 성격을 지닌 새로운 매체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 커뮤니티 등이 발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

신의 창조적인 행위를 하고자 또는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가 탄생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지점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자발적인 문화 예술동호회가 스스로 창조적 주체로 서서 정책의 중심에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성남문화재단 5대 문화정책사업 개념도〉

세로축 시민의 핵심사업은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성남의 문화클럽 조사는 문화시설과 주민자치 및 복지시설 등 1057개의 기관 중 373개를 전화설문(응답율 35%) 및 직접방문을 통하여 1103개의 문화예술 동호회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성남시 주요기관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를 추정(청소년, 대학생 제외)해보면 약 3,964개의 수치가 나옵니다. 성남은 가히 문화클럽의 보물창고라고 할 만합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이 중 활동이 왕성한 320개의 문화클럽을 뽑고, 또 그중 30개의 핵심문화클럽에서부터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구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110개의 핵심클럽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랑방’은 서양에서의 ‘살롱(salon)’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공간’ 명칭입니다. 우리의 동네에서는 ‘사랑방’을 중심으로 무수한 활동들이 엮어져 나갔었죠. 성남아트센터는 그야말로 성남 시민의 큰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태평4동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에서는 ‘문화놀이터_아트클럽’과 ‘움직이는 사진관’이라는 두 개의 아담한 ‘사랑방’을 열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30개의 핵심문화클럽 중의 하나인 ‘무한포커스’라는 사진 동호회

는 ‘움직이는 사진관’에서 태평4동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영정사진을 찍어 드리며 왕성한 활동을 한 바 있는데,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이러한 ‘사랑방’을 문화클럽과 연계하여 현대의 생활공간 속에서 ‘문화통화’를 활용하여 서로 품앗이처럼 나눔의 문화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세로축의 두 번째 사업은 ‘비전’입니다. 그 사업명을 우리는 ‘문화도시 성남시 정체성 구축’이라 하였는데, 이는 도시의 문화적 재생을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문화의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획과 전망을 세워나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성남시는 서울에 인접한 도시로서 1960년대부터 이미 서울의 인구 분산과 일부 도시 기능을 분배 받아 개발된 일종의 계획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년대 서울시 철거민의 집단정착지로 개발된 현재의 본도심(중원구, 수정구)과 80년대 후반부터 서울시 강남권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개발된 신도심(분당구)은 이주하게 되는 집단의 성격이 상이하어, 결과적으로 성남시는 이원화된 도시 구조를 갖게 된 것이 도시의 큰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의 역사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성남시는 절실하게 신·구도심에 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시 정체성 확보 문제와 문화 정책을 연관 지어 생각해 야 했고, 이를 성남문화재단 정관에 명시¹⁾ 함으로써 성남문화재단 문화 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이 기층 정서와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추상적 개념이기에, 한 두 개의 사업을 통해 시민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도시의 정체성이란, 도시민이 공동으로 오랜 기간 동안 도시의 무엇을 도시 외부에 알리고, 도시의 삶에서 무엇을 지향하고, 도시를 가꾸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의 문제로, 성남문화재단에서는 도시 정체성의 문제를 곧 주체적 문화 시민 육성의 문제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런 철학적 배경을 근간으로 주체적 문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인큐베이터로서 문화적 공동체를 설정하였으며, 이것의 구심체가 사랑방문화클럽입니다. 동시에, 시민을 주체적 문화 시민으로 육성하면서, 이들이 향후 주인으로 서게 될 공간을 동네로 보고 5개 유형의 동네(골목길, 아파트, 공단, 상가, 시장)에 예술가가 함께 들어가 일상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창조하기 위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

1)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제1장, 제1조에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한 성남시의 정체성 확립,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 문화창달 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라고 기관 설립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들기 사업을 시발점으로 45개동으로 확산시켜나갈 준비도 함께 펼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전’ 사업은 도시계획과 긴밀하게 맞물릴 수밖에 없는 특성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3단계의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단계(2006년~2008년)의 3개년계획, 2단계(2009년~2013년)의 5개년계획, 3단계(2014~2020)의 7개년계획은 각각이 핵심적인 초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당연한 것이 단계마다 성취해야 할 목표와 요구되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1단계 3개년의 핵은 밀착사업입니다. 특히 핵심적으로 활동할 사랑방 문화클럽과 시범동네의 주민주체가 얼마나 탄실히 꾸려지는가가 향후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조직사업에 공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2단계 5개년에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문화도시 조례’를 추진하게 되고, 현실로서 구체화될 ‘문화도시 성남의 마스터 플랜’을 시민의 충분한 의견개진과 공유 속에서 제출할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3단계 7개년은 그야말로 꽃을 피워야 하는 시기니 도시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결집하여 각각의 특색과 색깔들이 만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1단계는 향후 2, 3단계의 본격적인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주체형성의 기반조성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08년도는 벌써 1단계 3개년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펼쳐지는 2단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바쁜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비전’은 어느 연구보고서에서 푹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창조적 주체들 속에서 의제화 될 때만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서 볼 것은 ‘동네 프로젝트’가 도시의 문화적 재생전략과 결코 분리되어 진행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성남시에서 항상 최고의 정치적 이슈는 단연 ‘본도심의 재개발’ (성남시는 본도심이라 칭하는 수정구/중원구와 분당/판교와의 차이가 도시전체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임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입니다. 태평4동에서 동네를 문화적으로 바꿔나가는 다양한 시도를 펼쳐나가자, 혹자는 “철거해버리면 깡그리 없어질 걸 뭐하러 그 고생을 하나?”라며 마치 내일이라도 재개발을 하여 땅값이 쟁쟁해질 것 같다는 식의 허튼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네 프로젝트’는 그 동네가 처한 도시전체에서의 위치와 밀접한 상호관계 속에서 배치되어야 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동네의 문화적 시도가 중장기적인 문화도시 창조전략과 맞물려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로축의 마지막은 ‘문화통화 시스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문화통화’는 문화복지와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한 지역통화제입니다. 문화통화 사업은 5대 문화정책사업 중 가장 뒤에 실현될 프로젝트인데요, 1단계 3년 동안 수행해야할 과제가 성남의 문화통화 모델 창출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2006년 8월부터 10월에 걸쳐 문화통화 준비를 위한 ‘2006 성남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성남의 문화예술인 2000여명 중 401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96.5%가 문화통화 시스템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주요 동기로는 ‘주민과 예술과의 거리극복’(35.1%), ‘즐거운 삶의 영위와 삶의 질 향상’(34.8%), ‘지역공동체 의식고양’(13.2%), ‘사장될 수 있는 재능의 활용’(10.3%)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8월말에는 성남시 집행부, 시의회, 예총, 민예총, 문화원,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의 관련인사들과 문화재단이 해외사례조사단을 구성하여 일본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문화통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지역에서 문화예술 생산·소비·유통을 어떻게 자생력의 향상을 통해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있습니다.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문화도시를 창조해나가는 주체로 나서게 해야하는데, 이는 재원을 외부에서 계속 쏟아붓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들이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자생적 시스템’이 운영되어질 때 궁극적으로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가로축은 세로축과는 달리 지금 당장 동네로 결합하여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문화예술을 통해 삶의 공간을 바꾸고 스스로 창조의 주체로 나서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가로축의 핵심사업은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와 ‘성남인의 창작진흥’ 사업입니다. 이 ‘공간’과 ‘창작’의 두 가지 사업은 1개의 동네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동네의 공간을 문화예술적으로 재생하는 작업은 곧 주민 스스로 창조적 문화예술활동에 적극 뛰어들 때만이 그 의의가 있고 또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에는 45개의 동이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동네의 유형이 골목길, 공단, 아파트, 시장, 상가 등 총 5개 정도로 분류될 수 있음을 조사한 후 3년 동안 5개의 동네를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범마을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의 과정을 소상히 기록하여 ‘프로젝트 북’을 펴내는 일입니다. 태평4동의 프로젝트 북은 2006년 12월에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2007년도 은행2동 ‘풀장환상’(아파트유형), 상대원공단 ‘콩닥콩닥 예술공단’(공단

유형), 2008년도 시장과 상가 프로젝트북과 함께 2단계 5개년을 출발하는 2009년도부터 45개동의 동네 프로젝트 담당자 워크숍의 교재로 쓰일 계획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책자가 ‘태평4동의 프로젝트 북’이지 ‘골목길 동네 일반의 메뉴얼 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태평4동의 사례를 통해 그것을 만들어간 과정을 참조하라는 것이지, 프로그램을 그대로 다른 동네에 적용하라는 것이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45개 동네의 프로젝트는 각각 그 동네가 처해 있는 독특한 환경과 필요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주민들의 창조적 작업을 통해 그 동네만의 문화적 향기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가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가로축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성남문화재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결코 성남문화재단이 45개 동네 프로젝트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의 역할은 문화정책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 그 문화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작 동네를 문화의 향기가 넘쳐나는 마을로 바꿔나가는 주체는 예총, 민예총을 비롯한 지역예술가들과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민관단체들, 그리고 바로 제일 중요한 주민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성남문화재단은 동네 프로젝트 지원센터의 역할을 초기에 하면서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지속성을 위한 ‘주민들의 작은 동네축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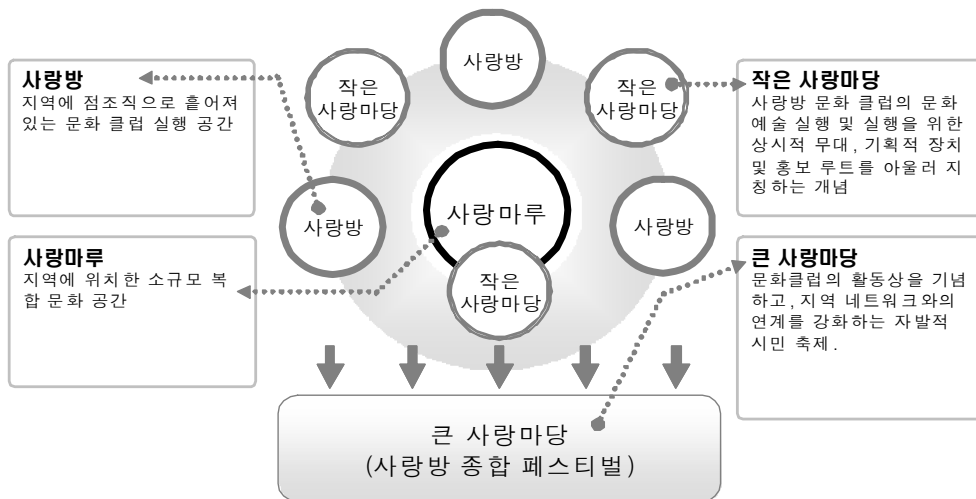
사랑방 문화클럽의 문화공헌 프로젝트와 공간정책

사랑방 문화클럽 육성 방안에서는 공간(‘사랑방’)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문화클럽이 생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차적 요소가 ‘만남이 일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문화클럽들이 활동하는 공간, 즉 사랑방은 삶의 현장과 밀접히 닿아있는 지역 곳곳에 분산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방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작은 사랑마당을 기획하기 위해 사랑마루가 지역에 존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지역 사랑마루는 만남(通), 학습(育), 실행(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문화클럽의 성격을 고려하여 복합적 공간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방과 사랑마루, 작은 사랑마당에서 일구어진 문화클럽 활동의 결실은 하나의 물결로 모여져서 큰 사랑마당을 통해 표출될 것입니다.

사랑마루는 사랑방에서 (큰)사랑마당으로 넘어가기 위한 길목 역할을 하며, 사

랑방 문화클럽 운영 지원팀인 '사랑마루 허브'와 지역 내 위치한 소규모 복합공간 '지역 사랑마루'로 나뉩니다.

사랑마당은 열린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문화 클럽의 표출과 공헌 마당(場)으로 작은 사랑마당과 큰사랑마당으로 나뉩니다. 작은 사랑마당은 문화클럽이 주도하여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소규모 축제, 공연이고, 큰사랑마당은 화합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지역 축제입니다. 2007년 10월에 성남아트센터와 율동공원에서 펼쳐진 사랑방 클럽축제에는 출연진만도 720명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성남아트센터, 남한산성,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등 성남 곳곳에서 본격적인 성남 시민의 축제를 펼칠 계획을 세워놓고, 이미 추진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방 문화클럽 공간 열개〉

2008년도 사랑방 문화클럽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문화공헌 지원 프로젝트’ (이하 문화공헌)입니다. 문화공헌은 2007년도 지원사업과 운영위원회 조직을 평가하면서 클럽 스스로 도출한 결과였습니다. 첫째, 일상적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프로그램을 창조해보자. 둘째, 이러한 일상활동이 운영위원회와 네트워크의 클럽들간 긴밀한 결합을 높여낼 수 있도록 팀제로 운영하여, 팀장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자. 셋째, 개별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가 함께 구성된 팀을 지원하며, 활동 속에서 네트워킹을 확대해 나가자.

이 세 가지의 결의는 30년이 넘는 우리나라 지원사업의 역사에서도 찾기 어려운 매우 획기적인 방안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이 결의를 전체 클럽인들이 참

여하는 워크숍에서 확정하고, “우리의 힘은 창조적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마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할 더욱 창조적 방안을 앞으로 모색해 나간다면 사랑방 문화클럽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결의는 바로 실행에 옮겨졌고, 총 103개 클럽 10팀이 응모하여 최종 67개 클럽 7개팀으로 심의·확정, 지금 현재도 성남시 동네 곳곳에서는 사랑방 문화클럽의 문화공헌 활동이 ‘문화도시의 발’을 일구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사랑방 문화클럽이 꽃피는 도시에서 그 열매를 누리는 꿈을 그리며….

사랑방 문화클럽 문화공헌 현황

○ 7개팀_67개 클럽 참여

번호	팀명	대표명	참여 클럽수	참여클럽(클럽지기)
		소속클럽		
1	사랑, 나눔의 기쁨	김은숙	6	분당색소폰클럽(임기용)/분당요들클럽(김원섭)/민요사랑(이현정)/샤론클럽(이성녀)/가족풍물패 신바람(박창식)
		여섯줄사랑		
2	아름다운 문화마을	박순정	11	쭈민세상(김성운)/빛누리(김교진)/늘봄(이상훈)/천상연(김영범)/맑은누리(홍은숙)/쁘니(박정숙)/한지마을(조성임)/단청(왕순임)/야단법석(이은정)/이야기야 놀자(박소연)
		여행꾸러미		
3	사랑의 힘	안윤환	14	성남누드크로키(류해일)/연우회(박아영)/규방공예(김정현)/한지공예(김임진)/늘푸른꽃누리미(김성덕)/분당퀼트(김미화)/분당늘푸른색소폰앙상블(김기덕)/로망스기타합주단(이정미)/아름다운클래식음악이있는곳(김일식)/찬란한일상(김성진)/빛여울(이은주)/은빛샘수채화(김미나)/아마데이만들린챔버(김병규)
		분당중앙수채화		
4	백년의 약속	곽윤부	7	대원목향회(박미영)/산도깨비(권재형)/서각마을(김영자)/성남아트센터사진클럽(고홍석)/소망을그리는사람들(박순덕)/수목향기(유명헌)
		풍물굿패우리마당		
5	우리동네 음악회	박병준	11	원드매니아(민원기)/풍물굿패두령(문정숙)/비바댄스(김중근)/스튜디오창(이현창)/성남아트센터사진반(최명수)/모듬복을사랑하는사람들(김은수) 노래만큼좋은세상(김수란)/터줏풍물패(윤선노)/성남서예청년작가회(이순덕)/성남6mm(김중남)
		자율학습		
6	그루터기	김천복	7	에듀플루트오케스트라(김은영)/분당만들린(조옥련)/고은이오(남화순)/수람회(조순희)/예다음(이만복)/닥종이인형만들기(강명자)
		탄천색소필		

7	Moving Sound	박종대	9	분당윈드오케스트라(김태선)/ 보네르플룻오케스트라(김형미)/풀잎소리(유영식)/성남목관앙상블(김용우)/분당여성합창단(김인숙)/맑은노래친구들(윤금선)/새암터(허은아)/성남분당사진사랑(김진한)
		로스아미고스 기타합주단		

○ 행사일정

월	일시	주관	행사명	장소	
5	10(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우리동네 홈페이지 만들기	금광1동	
		우리동네 음악회	새봄맞이 산성음악회	남한산성놀이마당	
	14(수)~16(금)	19:00-21:00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진교육_1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15(목)	13:00-14:00	그루터기	소외된 노인을 위한 공연	수정노인복지센터
	17(토)	19:00-20:30	사랑의 하모니	효,가족사랑 음악회	태평4동 금빛초교
	20(화)	19:00-21:00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진교육_2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21(수)	16:00-18:00		어린이동네방송국_1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21(수)~28(수)	10:00-16:00	사랑의 힘	국군아저씨 힘 내세요	국군수도병원
	24(토)	10:30-13:00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한지공예 체험교육_1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25(일)	09:00-17:00		문화생태기행_1차	경기일원
		10:00-18:00		행복한 밥상만들기_1차	금광동 일원
	27(화)	19:00-21:00		주부풍물교육_1차	터사랑청년회
				사진교육_3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28(수)	16:00-18:00		어린이동네방송국_2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31(토)	16:00-18:00	Moving Sound	숲 속의 풀잎소리 여행	은행2동 주공APT 풀장	
6	추 후 공 지	14:00-15:30	백년의 약속	찾아가는 혼례잔치	정자1동 청솔복지관 앞
	3(화)	19:00-21:00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주부 풍물교육_2차	터사랑청년회
				사진교육_4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4(수)	16:00-18:00	어린이동네방송국_3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6(금)~8(일)	11:00-18:00	사랑의 힘	오감의 힘	울동공원 책 테마파크
	7(토)	15:00-18:00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우리동네 역사탐방_1차	만해기념관
8(일)	10:00-18:00	행복한 밥상만들기_2차		금광1동 일원	

	10(화)	19:00-21:00		주부 풍물교육_3차	터사랑청년회
				사진교육_5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11(수)	10:30-11:30	Moving Sound	사랑의 하모니	단대동 성남혜은학교
		16:00-18:00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어린이동네방송국_4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13(금)	15:00-18:00		우리동네 역사탐방_2차	남한산성 일원
		14(토)		15:00-18:00	우리동네 역사탐방_3차
	10:30-13:00			한지공예 체험교육_2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16:00-18:00			장수사진 촬영_1차	금광1동 일원
	17(화)	19:00-21:00		주부 풍물교육_4차	터사랑청년회
		19:00-21:00		사진교육_6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18(수)	16:00-18:00		어린이동네방송국_5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20(금)	15:00-18:00		우리동네 역사탐방_4차	정일당묘역
	21(토)	19:00-21:00		우리동네 음악회	우리동네 음악회
		15:00-18:00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우리동네 역사탐방_5차	토지박물관
	22(일)	08:00-17:00		문화생태기행_2차	경기일원
		10:00-18:00		행복한 밥상만들기_3차	금광1동 일원
	24(화)	19:00-21:00		주부 풍물교육_5차	터사랑청년회
		19:00-21:00		사진교육_7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25(수)	16:00-18:00		어린이동네방송국_6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24(화)	13:00-14:30	사랑의 하모니	사랑 나눔의 기쁨	복정동 수정노인복지센터	
27(금)	15:00-18:00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우리동네 역사탐방_6차	토지박물관	
28(토)	15:00-18:00		우리동네 역사탐방_7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14:00-16:00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이야기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7	1(화)	19:00-21:00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주부 풍물교육_6차	터사랑청년회
		19:00-21:00		사진교육_8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2(수)	12:00-13:00	그루터기	환자들을 위한 위문공연 및 전시회	분당 제생병원
		16:00-18:00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어린이동네방송국_7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6(일)	10:00-18:00		행복한 밥상만들기_4차	금광1동 일원
		8(화)		19:00-21:00	주부 풍물교육_7차
	19:00-21:00			사진교육_9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9(수)	16:00-18:00		어린이동네방송국_8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11(금)~17(목)	10:30-18:00	사랑의 힘	사랑방의 힘	아트스페이스 율갤러리
	12(토)	14:00-16:00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이야기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16:00-18:00		장수사진 촬영_2차	금광1동 일원
	15(화)	19:00-21:00		주부 풍물교육_8차	터사랑청년회
		19:00-21:00		사진교육_10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19(토)	20:00-21:30	사랑의 하모니	자연사랑 음악회	하대원동 대원분수공원_예정	
	16:00-20:00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마을문화제 우리동네소식지 발간 한지공예 체험교육_3차	금광1동 금상초등학교	
20(일)	10:00-18:00		행복한 밥상만들기_5차	금광1동 일원	
	19:00-20:30	Moving Sound	풀벌레 소리	남한산성 놀이마당	
28(월)	13:00-14:00	우리동네 음악회	위문공연	산성동 수정노인복지회관	
8	2(토)	20:00-22:30	사랑의 하모니	'열대야, 놀자'	율동공원 야외공연장
	10(일)	19:00-21:00	우리동네 음악회	한 여름밤의 Rock Concert	중앙공원 야외무대
	24(일)	15:30-20:30	그루터기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한마당	중앙공원 야외무대
9	2(화)~7(일)	10:00-18:00	그루터기	가을문턱 전시관 나들이	분당여성문화회관 갤러리
	6(토)	20:00-22:00	사랑의 하모니	추억으로 가는 음악여행	율동공원 야외공연장

	7(일)	16:00-17:30	Moving Sound	귀뚜라미 노래잔치	울동공원 책 테마파크
		14:00-15:30	백년의 약속	찾아가는 혼례잔치	은행2동 주공APT 풀장
	19(금)	20:00-22:00	그루터기	찾아가는 길거리 공연	정자동 불정교
	21(일)	14:00-15:30	백년의 약속	찾아가는 혼례잔치	태평4동주민자치센터 뒷마당
10	4(토)	18:30-20:30	우리동네 음악회	희망대 Rock Concert	희망대공원
	5(일)	14:00-15:30	백년의 약속	찾아가는 혼례잔치	금광1동 금상초교 강당
		16:00-17:30	Moving Sound	낙엽소리	탄천어린이수영장
	21(화)	19:30-21:00	사랑의 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양상블시어터
	25(토)~26(일)	11:00-18:00	사랑의 힘	당신들의 힘을 느낍니다	성호시장
	26(일)	14:00-15:30	백년의 약속	찾아가는 혼례잔치	수진2동 주민자치센터 강당
	28(화)	19:00-20:30	그루터기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정자청소년수련관

*상기 일정은 프로그램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화마을팀의 11개 행사는 상대적 문화기반이 취약한 중원구 금광동을 중심으로 실행

*아름다운 문화마을팀 행사를 제외한 31개 행사 중 본도심 16개와 신도심 15개 행사 실시 예정